

제18대 국회의원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한나라당 김영우 압도적 표차로 當選

‘젊고 패기있는 새 일꾼 등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기호2번 한나라당 김영우 후보가 유효투표의 49.68%를 얻어 29.72%의 지지를 얻는데 그친 기호7번 무소속 박윤국 후보와 18.32%를 획득한 기호1번 정명재 후보를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는 총 15만8,217명의 유권자 가운데 7만5,171명이 투표에 참여해 50%에 못 미치는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결과 후보별 득표현황은 5만6,136명이 투표에 참여한 포천시연천군의 경우 김영우 당선인이 2만7,714표(49.93%), 박윤국 후보 1만7,271표(31.12%), 정명재 후보 9,392표(16.92%), 김성규 후보 1,118표(2.01%)를 획득했다.

또 1만9,355명이 투표에 참여한 연천지역은 김영우 당선인 9,157표(48.91%), 박윤국 후보 4,792표(25.59%), 정명재 후보 4,211표(22.49%), 김성규 후보 559표(2.98%)를 획득했다.

이날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포천시 유권자 12만1,666명 가운데 5만6,262명이 투표에 참가해 46.3%의 투표율을 보였다.

또 연천군 3만6,640명 가운데 1만9,611명이 참가해 52.1%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투표율 55.93%와 대통령선거 58.95%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포천시지역 후보별 투표현황을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소흘읍 12,855표(38.70%) ▶군내면 2,880표(51.42%) ▶내촌면 2,037표(47%) ▶가산면 2,974표(42.39%) ▶신북면 4,432표(42.48%) ▶창수면 1,345표(54.90%) ▶영종면 2,374표(49.72%) ▶일동면 4,179표(49%) ▶이동면 2,586표(51.39%) ▶영북면 4,423표(55.58%) ▶관인면 1,947표(58.24%) ▶화현면 1,286표(53.14%) ▶포천동 6,563표(49.36%) ▶선단동 3,725표(36.56%) 등이다. 연천지역은 전체 유권자 3만 6,617명 가운데 1만9,611명이 투표에 참가해 52.1%의 투표율을 보였다.

한편 압도적으로 당선된 김영우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사회로부터 젊고 패기있는 새 일꾼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6월4일에 보궐선거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기호2번 한나라당 김영우 후보가 유효투표의 49.68%를 얻어 29.72%의 지지를 얻는데 그친 기호7번 무소속 박윤국 후보와 18.32%를 획득한 기호1번 정명재 후보를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당선됐다.

선출되는 포천시장은 김영우 당선인의 역할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결과에 따라서는 포천시 지역 정치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우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제18대 포천·연천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주민 여러분과 포천·연천의 부름을 받았다”며 “무한한 책임감과 한없는 감사함으로 이 부름에 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당선인은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는 절박한 요구이자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심을 하나로 모아 내도록 노력하고 주민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말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통령과 함께 희망을 나누는 포천·연천의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영우 당선인과 일문일답이다.

▶**당선 소감**
지지해 주고 성원해 준 포천과 연천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했던 통합민주당 정명재 후보와 무소속 박윤국 후보, 평화통일가정당 김성규 후보에게 위로와 함께 공정하게 경쟁해 주고

받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민심의 요청이자 민심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강력한 힘과 실천하는 실천력을 주민들이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기존 정치문화에서 벗어나 신선하고 깨끗한 정치인을 기대하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나라당 공천이 지연되고 현역 국회의원과 공천경쟁을 해야한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정치신인 입장에서 보면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 특히 지역선배이기 때문에 선후배간 경쟁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크게 부담이 됐다.

▶**임기 동안 마스터플랜은**
인구 30만 전원형 경제자립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포천뉴타운 개발에 따른 포천구도심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도심 사업,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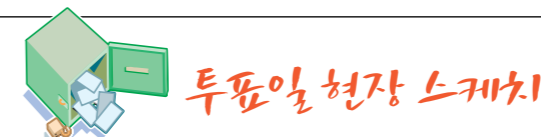
과 5월 2개월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현안 문제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의정활동 계획에 반영할 것이다.

▶**지역사정을 이행하기 위해 구상한 것이 있다면**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갈 것이다.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구상한 것이 있다면**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사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포천시 지역대학, 외부전문가, 현역의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발전간담회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실사작업을 실시한 후 지역발전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사업과 중기사업, 장기사업으로 분류한 후 체계적으로 공약사항을 추진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정치 초년생이다. 성원과 지지를 보낸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지역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단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관련기사 3면~5면, 12면**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사상 최저 투표율 정치 외면

후보들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실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는 포천시지역 63개소와 연천지역 35개소 등 모두 98개소다.

이들 투표구에서 오전 6시부터 일제히 투표가 시작된 이번 선거는 하루 종일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오전에 자신의 주소지에 포함된 투표소에서 각각 투표를 마쳤다.

가장 먼저 무소속 박윤국 후보가 오전 7시30분경에 영북면 제1투표소인 영북의 용소방대에서 투표를 마쳤다. 투표를 마친 박윤국 후보는 투표소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박 후보는 “13일간의 대장정이 마감됐다. 결과는 진인사대천명 아니겠냐”면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와 관계없이 좋은 예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영우 후보는 오전 8시경 포천동 제3투표소인 포천보건소에서 어머니 이근례(80세)여사와 함께 투표를 마쳤다. 김영우 후보는 느낌을 묻는 질문에 “느낌이 좋다.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공천이 늦어져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던 점이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호6번 김성규 후보는 오전 8시20분경 포천동 제1투표소인 포천보건소에서 투표를 실시했다. 김 후보는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면서 “평화통일가정당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1번 정명재 후보는 오전 9시 포천동 제1투표소인 포천초등학교에서 부인 김순희(44세) 여사와 함께 투표를 마쳤다. 투표를 마친 장 후보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막판 능력을 갖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는 병원에 입원했던 김근천씨가 환자복을 입고 투표소에 나와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김근천씨는 얼마전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절단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있다. 김씨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화현면 제1투표소가 마련된 화현초등학교 급식소에서 목발과 링겔을 쫓은 상태로 부축을 받으며 투표에 참석했다.

심재인 포천시장 권한대행은 포천초등학교에서 투표를 마친후 투표소를 순회하며 투표종사 공무원들에게 투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오전 11시경에는 투표상황실이 마련된 포천시청 제1상황실을 방문해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오후 6시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마감했다. 투표마감 결과 포천시 투표율은 46.3%와 연천지역 52.1%로 역대 선거사상 최저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가 마감되자 각 투표소 투표함은 개표장소인 포천종합운동장으로 운송되어 개표에 들어갔다. 개표현장에는 민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인력과 소방인력 등이 배치됐다.

개표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저녁 8시경부터 당선자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지지자들은 김영우 후보가 50%의 지지율을 보인다는 방송멘트가 나오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우 후보가 처음부터 앞서나가 결국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영우 당선자 사무실에는 당선 유력 시가 표시되기 시작한 저녁 8시경부터 지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김영우 당선자 축하연이 시작된 저녁 10시에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 南養電機通信(株)

(전기 · 통신 · 전문소방 공사업)

社訓 正道 · 自律 · 責任
經營方針 內實經營은 會社發展



주요공사

- 신항대학 신관 전기공사
- 한국정불교회 각 지구 7개 회관 신축 전기공사
- (주)쌍방울개발 무주리조트 전기공사 시공 및 보수공사 시공
- 두루넷 경기도북부지역의 개업업무 및 A/S업체로 선정 공사중
- 창원대학교 기숙사 신축전기공사 시공중
- 이천중등교육청 신축통신공사 시공중
- 관악정신과 증축 소방공사 등 관공서 공사 시공중

회사연혁

- 1990년02월 남일 전기공사 창업
- 1996년12월 법인설립 추진
- 1996년12월 사업장 확장 이전
- 1997년01월 남양전기통신(주)로 상호변경(법인설립)
- 2000년04월 자본금 3억원으로 증자
- 2000년04월 사업장 확장 이전
- 2001년08월 자본금 3억5천만원으로 증자
- 2001년11월 전문소방공사업 면허취득



南養電機通信(株)

대표이사 鄭 濠 永(한국전기공사협회 북부회 부회장)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416-54 1층
대표전화 031) 876-0140